

“동물이 행복한 게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

이재명 후보, 반려동물 유튜브 ‘재끼찬’ 출연

동물전문가 이찬종 · 한재웅과 함께 반려동물 문화의 변화, 미래 이야기

○ 12.31(금) 오후 5시 유튜브 <재끼찬>에 동영상 업로드 예정

○ 이재명, “반려동물을 물건인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로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이재명 후보가 출연한 반려동물 유튜브가 방송된다.

31일(금) 오후 5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반려동물이 함께한 동영상인 반려동물 전문 유튜브 ‘재끼찬’에 공개된다. 이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는 직접 강아지와 산책하며 동물전문가들과 함께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재끼찬’은 TV동물농장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 이찬종 동물훈련사와 한재웅 수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로써 반려동물과의 일상과 궁금한 정보, 유기동물 구조, 동물복지 관련 이슈 등을 업로드하는 콘텐츠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오산시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재끼찬’ 유튜브 촬영을 진행했으며, 특히 개농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돼 이찬종 소장이 키우면서 유명해진 반려견 ‘꽃님이’와 함께 산책하고 현장 견사를 둘러보는 등 강아지들과 직접 스킨십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찬종 훈련사, 한재웅 수의사와 함께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의 현실과 개선점, 반려동물 정책 강화 필요성 등 반려동물 문화의 비전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존중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말했고, 향후 행정적으로 동물복지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견사 방문 때부터 안고 있었던 강아지가 토크(talk) 중 바닥에 오줌을 싸

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이재명 후보가 강아지의 오줌을 직접 치웠다는 후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유튜브 촬영 당시 현장사진

